

저자 (Authors)	김복순 Kim Bok-soon
출처 (Source)	신라문화 36 , 2010.8, 81-112(32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6 , 2010.8, 81-112(3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26077
APA Style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81-11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4 11:3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백고좌법회

김복순*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신라 백고좌법회의 개설과 진행 |
| II. 신라 백고좌법회의 기록 검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의 백고좌법회는 호국법회의의 백미라고 할 만큼 중요한 법회이다. 『仁王經(구마라주 역의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호국품』에 의거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경전을 강설하는 법회로 仁王백고좌법회라고도 하며, 국가적으로 7難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였다. 이 법회는 여러 면에서 신라불교가 호국불교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적 규모의 대법회였다. 신라의 황룡사는 호국사찰이라는 題名에 걸맞게 많은 호국법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가운데 백고좌법회는 거의 황룡사에서 개최되었다. 신라의 백고좌법회는 진흥왕대에 처음 개최된 이래 10번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고려에서의 200번에 비하면 매우 소략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먼저 신라의 백고좌법회에 초점을 맞추어 10번의 기록을 검토하고, 법회의 사상적 배경인 『인왕경』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회의 실질적인 준비상황과 진행의 내용 구성을 통해 백고좌법회의 면모를 밝혀 보았다. 그런데 황룡사에서 개최된 백고좌법회는 신라시대에만 행해졌으므로, 신라에서의 법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고려에서의 행사 내용은 참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대에 왕궁을 황룡사로 만들게 되는 배경에 혜량(고구려에서 망명한 승려)의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고, 제일 처음 개최된 백고좌회는 황룡사가 준성되는 진흥왕27년(566)에 낙성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이 법회에서 제일 중요한 100법사의 高座를 일본의 唐招提寺의 고좌와 중국의 돈황석굴 벽화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법회의 공양물로 『삼국유사』 「만불산」 조에 나오는 薺薺(치자꽃)과 菴羅(망고열매)에 주목하였다. 이는 신라인들이 불교의 본향인 인도에서 나는 담복인 치자꽃과 암라인 망고열매를 공양물로 썼기 때문에 「만불산」 조에 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법회의 모습을 현재 태국에서의 법회를 백고좌법회와 비슷한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다.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영문초록] Backgojwabuphwei is very important. It can be said as the core of Buddhist service for protecting country because it was held when 7 riots occurred. It was prepared and opened the lectures of Buddhist sutra on the basis of "Hokukpum" in 『Inwangkyung』, which is 『Inwanghokukbanyabaramilkyung』 translated by Kumarajeup. It, as a nationwide service, provided Buddhism of Silla with an opportunity to settle down as Buddhism for protecting country. The Buddhist services were mainly held in Whangyongsa temple which was called as the Buddhist temple for protecting country. Among the services, Backgojwabuphwei was mainly held in the temple.

In Silla, Backgojwabuphwei had been held about 10 times since the king of Jinheung. These numbers were very few, compared with the fact that this kind of service was held 2 hundred times in Korye dynasty.

This study focusing on Backgojwabuphwei explains the records of the ten times service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service, and the contents of the 『Inwangkyung』. Moreover, I tried to illustrate the entire picture of the service including the movement and the processes of preparation. Because Backgojwabuphwei was held in Silla dynasty, I studied mainly the services in Silla; however, I partly considered the services in Korye dynasty.

In doing so, I suggested that Hwangyongsa temple was established in the place where the king of Jinheung wanted to build his palace according to the advice of Hyeryang, a Buddhist priest exiled from Kokurye. Also, I argued that the first Backgojwahwei was held in AD 566(the 26th year of King, Jingheung) for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Whangyongsa temple. I could find the picture of the chairs where 100 famous Buddhist priests seated at the service from Dangchojesa temple in Japan and the fresco of Donwhang cavern. In addition, I paid attention to the flower of gardenia and mango mentioned in the chapter of "Manbulsan" in 『Samkukyusa』. I think that the flower of gardenia and mango were mentioned in the chapter because these are used as memorial service in India. Finally, I have provided a picture of Backgojwabuphwei, which is similar to the current Buddhist service in Thailand.

[주제어] 신라 백고좌법회(Backgojwabuphwei of Silla), 『인왕경』(『Inwangkyung』), 황룡사(Whangyongsa temple), 진흥왕(the 26th year of King, Jingheung in Silla), 고구려 망명승 혜량(Hyeryang, a Buddhist priest exiled from Kokurye), 백고좌(the chairs where 100 famous Buddhist priests seated at the service)

I. 머리말

신라의 백고좌법회는 호국법회의 백미라고 할 만큼 중요한 법회로, 국가적으로 7년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는데, 『인왕경(구마라주 역의 『인왕 호국반야바라밀경』)』 「호국품」에 의거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경전을 강설하는 법회이다. 신라의 황룡사는 호국사찰이라는 題名에 걸맞게 많은 호국법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가운데 백고좌법회는 거의 황룡사에서 개최되었다.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¹⁾는 진흥왕대에 처음 개최된 이래 10회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고려에서의 200회에 비하면 매우 소략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먼저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에 초점을 맞추어 10회의 기록을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법회의 준비사항을 사상적인 준비와 실질적인 준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법회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왕경』의 관련 내용을 보려하며, 법회의 실질적인 준비상황, 그리고 진행 등으로 그 전모를 밝혀 보려 한다. 그런데 황룡사에서 개최된 백고좌법회는 신라시대에만 행해졌으므로, 신라에서의 법회를 중심으로 그 개설된 내용과 진행을 살펴보고, 고려에서의 행사내용이 참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대에 처음 개설되는 백고좌법회의 개최연대를 주목하였고, 『삼국유사』 만불산 조에 나오는 담복과 망고를 들어 신라인들이 불교의 본향인 인도에서 나는 담복인 치자꽃과 망고열매를 공양물로 쓴 것에 주의하여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인왕백고좌의 모습을 재현해 본다면 어떠한 형태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현대 태국에서의 법회를 한 예로 제시해 보려 한다.

II. 신라의 백고좌법회 기록 검토

신라에서 열린 (인왕)백고좌회는 모두 10회로 구체적인 연대는 다음과 같다.

(1) 진흥왕 대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2) 진평왕 35년(613) 7월, (3) 선덕여왕 5년(636) 3월, (4) 성덕왕대 인왕도량, (5) 해공왕 15년(779) 3월, (6) 헌강왕 2년(876) 2월, (7) 헌강왕 12년(886) 6월, (8) 정강왕(887) 2년 1월, (9) 진성여왕 1년(897) 가을, (10) 경애왕 즉위년 2월 29일에 황룡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10회의 기록 가운데 (4) 성덕왕대의 인왕도량은 제외된 바 있다. 그리고 『송고승전』 원효전에 나오는 백좌인왕경대회와 선덕왕 5년의 법회를 별도로 보고 있

1) 신라의 백고좌회는 인왕백고좌회로 쓴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인왕경』을 강설하는 법회로서 혹 인왕도량 등의 표현이 나오므로 이를 혼용해서 쓰려 한다.

다.²⁾ 횃수는 같으나, 그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고좌법회는 百座講會, 백좌도량, 백좌법회, 인왕회, 인왕도량으로 다양한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지하듯이 『인왕경』을 주요 텍스트로 하는 100명의 고승이 참여한 법회인 까닭에 붙여진 명칭이므로, 성덕왕대의 인왕도량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법회는 거국적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국민정신의 단합과 국가의식의 고취 때문이었다. 10회의 기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진흥왕 대의 내용으로, 신라에서 열린 백고좌법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1)-1, 진흥왕 12년 신미에 왕이 거칠부 및 구진대각찬 ... 등 8장군에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이 먼저 평양을 공파하니 거칠부 등이 이긴 기세를 타고 죽령 이북 高峴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이에 이르러 혜량법사가 그 무리를 이끌고 路上으로 나왔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읍하여 절하고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 유학하였을 때에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니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되지 아니하니, 그대의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가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왕을 뵈오니, 왕이 승통을 삼고, 처음으로 백좌강회와 팔관법을 베풀었다.³⁾

1)-2, 왕이 居柒夫 등을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여 이김에 따라 10개 郡을 奪取하였다.⁴⁾

신라가 죽령을 넘어서 한강 상류 유역을 탈취하고, 거칠부 등이 惠亮법사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올 당시의 상황이다. 진흥왕 12년인 551년의 일이다. 이 때 진흥왕이 혜량을 승통으로 삼고 처음으로 백좌강회와 팔관법의 행사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같은 기사에 함께 언급되어 있어, 혜량이 신라로 온 해와 백좌강회와 팔관법이 베풀어진 때를 같은 해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백좌강회와 팔관법의 시행은 그가 신라로 망명 온 551년보다는 후대의 일로 생각된다. 그 내용

2) 이기백, 1978, 『황룡사와 그 시대』, 『신라시대 국가불교와 유교』(1986, 『신라사상사연구』, pp. 52~53).

3) 『삼국사기』 권44, 「거칠부」전.

4)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2년조.

을 살펴보자.

우선 백고좌법회가 개최될 황룡사가 553년에 창건된 사실이다. 이 법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을 봉안해야 하고, 100개의 高座를 시설해야 할 뿐 아니라, 100명의 비구, 사부대중 등이 참석해야 하므로 소규모의 사찰에서는 이러한 법회를 소화해 낼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화는 신라인들의 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 14년 2월에 왕이 담당관청에 명하여 月城 동쪽에 新宮을 짓게 하였는데, 그 곳에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상히 여겨 이 신궁을 佛寺로 고쳐 짓게 하고, 이름을 내려 皇龍寺라 하였다.⁵⁾

1)-4, 진흥왕 14년에 담당관청에 명하여 월성 동쪽에 신궁을 짓게 하였는데, 황룡이 그 곳에 나타났다. 왕이 이상히 여겨 고쳐서 佛寺를 삼고 黃龍寺라 불렀다.⁶⁾

진흥왕 14년 553년에 궁궐을 지으려다가 사찰로 고쳐 황룡사로 한테에는 아무래도 혜랑에 의해 궁궐을 사찰로 개조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선학(이기백)에 의한 추측이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보자면 이렇다. 즉 북조 불교의 경향을 알고 있던 혜랑이 진흥왕에게 백좌강회와 팔관회를 국가적인 규모의 법회로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을 가능성과 새로이 큰 사찰을 신축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진흥왕은 황룡의 출현이라는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시켜 황룡사를 지을 수 있게 여론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북위의 태극전 형태의 영녕사 등을 알고 있었을 혜랑은 백고좌회나 팔관회와 같은 대규모의 법회를 위해서는 궁궐 크기의 거대한 국찰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⁷⁾ 시기적으로도 그가 신라에 망명한 551년에서 2년이 지난 553년의 시점에 황룡사를 짓기 시작한 시점이 잘 맞아든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백좌강회와 같은 사료에 나오는 팔관회가 진흥왕 33년인 572년에 개최된 것으로 보면, 백좌강회의 시행연도도 그 어간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5)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4년조.

6) 『해동고승전』 권1, 법운전.

7) 양정석, 2000, 「신라 황룡사, 북위 영녕사 그리고 일본 대관대사 -5~7세기 동아시아 도성제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pp. 49~51 참조.

1)-5, 33년 정월에 연호를 鴻濟라 고쳤다. 3월에 왕태자 銅輪이 돌아갔다. 사신을 北齊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10월 20일에 전사한 병졸을 위하여 外寺에 八關筵會를 열고 7일 만에 罷하였다.⁸⁾

그런데 황룡사의 준공을 전후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1)-6, 26년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을 보내와 방문하였으며, 불교의 경론 1,700여 권을 보내왔다.⁹⁾

1)-7, 진흥왕 27년에 기원사와 실제사의 두 절을 낙성하였는데, 황룡사도 또한 공사를 끝냈다.¹⁰⁾

1)-8,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계유 2월에 궁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 하자, 그 곳에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고쳐 불사로 삼고 황룡사라 불렀다. 己丑년에 이르러 담장을 둘러니 17년 만에 비로소 끝났다.¹¹⁾

『삼국사기』에 의하면, 553년(진흥왕 14)년부터 시작된 황룡사의 공사는 14년이 흐른 566년(진흥왕 27)에 이르러서야 마치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기축년에 끝냈으므로 17년간의 공역이 든 것으로 쓰여져 있어 3년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팔관회를 연 것이 진흥왕 33년의 일이라고 보면, 백좌강회도 551년 내지 553년으로 보기는 어렵다. 백좌강회는 오히려 황룡사가 준공되는 진흥왕 27년(566)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²⁾ 그것은 첫째 황룡사가 준성되는 전 해에 진나라에서 불교의 경론을 1700여 권을 보내왔는데, 이는 황룡사의 낙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¹³⁾ 둘째 진흥왕 30년에 황룡사에 담장을 두른 것을 끝으로 황룡

8)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3년조.

9)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6년조.

10) 『해동고승전』 권1, 법운전;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7년조.

11)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육조.

12) 사찰이 준공되면 거대한 낙성식을 열었고, 실제 그에 관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한다. 『삼국유사』 권4, 명랑신인조에 의하면, 神印宗의 조사 명랑이 金剛寺를 새로 세우고 낙성회를 베풀었을 때에, 고승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혜공스님만은 오지 않았다. 명랑이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했더니 조금 뒤에 공이 왔다. 이때 바야흐로 큰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는 진흙이 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 공역이 끝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백좌강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27년에 황룡사가 준성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백좌강회를 열었을 때, 飯僧행사도 뒤따랐을 것이고¹⁴⁾, 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담장을 두른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에서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에서 백고좌회가 제일 처음 개설된 것은 진흥왕 27년인 566년, 황룡사가 준공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신라에서 제일 먼저 열린 인왕백고좌회는 황룡사의 낙성을 기념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발전에 대한 기원을 담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진평왕 35년(613) 7월에 열린 법회의 기록이다.

2)-1, 35년 봄에 가뭄이 있었다. 4월에 서리가 왔다. 7월에 수나라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니 百高座를 설치하고, 圓光 등의 法師(법사)를 청하여 불경을 설하게 하였다.¹⁵⁾

2)-2 진평왕 35년에 황룡사에서 百座會를 설치하고, 비구를 맞아다가 강경하였는데, 圓光法師가 上首가 되었다.¹⁶⁾

2)-3 건복 30년 계유(즉 진평왕35년이다) 가을에 수나라의 사신 王世儀가 오니, 황룡사에 百座도량을 설치하고, 여러 고승을 청해다가 불경을 강하게 하였는데, 圓光이 가장 上首에 자리하였다.¹⁷⁾

진평왕 35년(613) 7월 황룡사에서 원광을 上首로 하는 백고좌법회가 개설되었다. 수나라 사신 왕세외가 신라에 내방하여 개최된 법회였다. 진평왕 30년(608)에

13) 진흥왕 5년에 흥륜사가 낙성이 되고, 진흥왕 10년에 신라승 각덕이 불사리를 전송해 오자 왕이 백관으로 하여금 흥륜사 앞 길에서 맞이하게 한 것은 사리의 봉안이 흥륜사와 깊은 관련을 가진 때문으로 생각된다.

14) 법회 후의 반성은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것임을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고려에서는 백좌인왕도량의 개최 시에 거의 반성을 함께 하고 있고, 신라말 경애왕 즉위년에 행해진 백좌법회에서도 교종승과 함께 선종승려 300명이 반성에 참여하고 있어 신라에서도 백좌법회 후에 반드시 반성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5)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조.

16) 『해동고승전』 권2, 원광전.

17)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원광이 쓴 乞師表를 보낸데 이어, 진평왕 33년(611)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청하자 이에 대한 답사가 옴으로써 개최된 법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12년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수나라가 신라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파견한 사신이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수나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호국법회를 개최한 것이었다.¹⁸⁾ 이 인왕백고좌법회는 국가의 대외발전을 위한 전쟁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수의 사신 왕세의와 원광법사가 백고좌 시설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불교의례에 있어 중국과 신라의 긴밀한 교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선덕여왕 5년(636) 3월의 법회 기록이다.

3)-1, 3월에 왕이 병들었는데 의술과 기도가 모두 효험이 없자, 황룡사에 百高座를 베풀고 승려들을 모아 『인왕경』을 강설하게 하였고, 100여 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주었다.¹⁹⁾

3)-2, 이 때에 국왕이 百座仁王經대회를 설치하고 널리 석덕을 찾았는데, 본주에서 명망으로 그(원효)를 천거하였으나, 제덕이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²⁰⁾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법회이다. 신라의 원효는 인왕백고좌법회에 100명의 법사를 추천할 때 사람됨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아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금강삼매경론』을 지어 황룡사 법당에서 강론할 때 ‘지난 날 100개의 서까래를 구할 때에는 내가 비록 법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곳에서는 나만이 할 수 있구나!’라고 사자후를 토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의 두 사료는 각기 다른 법회로 보기도 하나, 같은 선덕여왕대의 기록이기도 할 뿐 아니라 자주 열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법회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두 기록은 같은 법회의 다른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사기에 이르기를 … 선덕왕대에 절의 첫 번째 사주는 진골인 환희사요, 두 번째 사주는 자장국통이요, 다음은 국통인 혜훈이요, 다음은 상울사라고 하

18) 김복순, 2006.9,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pp. 172~176.

19) 『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조.

20) 『송고승전』 권4, 「신라국 황룡사 원효전」(大正藏 50, p. 730 상~중).

였다.²¹⁾

선덕여왕 대에 황룡사의 寺主로서 환희사, 자장, 혜훈, 상울사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인왕)백고좌법회의 上首와 주도세력을 맡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원효로 대표되는 신진 승려들의 진출이 억제된 법회였다고 할 수 있다.

(4) 성덕왕대의 법회 기록이다.

4)-1, 제33대 성덕왕 때인 神龍 2년 병오(706)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듬해 정미(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인민을 구제키 위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 사람에게 하루 3升 씩으로 하였는데, 일을 마치고 계산해보니 30만 5백석이 들었다. 왕이 太宗大王을 위하여 奉德寺를 창건하였다. 7월 동안 “仁王道場”을 베풀고 죄인을 크게 사면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侍中의 직을 두었다.²²⁾

4)-2, (성덕왕) 5년 나라 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곡식창고를 열어 구휼하였다. 6년 봄 정월에 백성들 가운데 굶주려 죽는 이들이 많으므로 1인 당 하루에 조 3升을 7월까지 지급해 주었다.²³⁾

4)-3. (경덕왕) 6년 봄 정월에 중시를 시중으로 고쳤다.²⁴⁾

성덕왕대의 백고좌법회는 신라에서 ‘인왕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이다. 때문에 이 법회를 봉덕사에서 도량을 설치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받은 바 있다. 즉 봉덕사에서의 백고좌법회 개최가 가능했을까하는 의심 때문이다.²⁵⁾

그런데 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발로 인한 기근의 일과 왕이 태종대왕을 위하여 봉덕사를 창건한 일, 그리고 인왕도량을 베풀고 죄인을 사면한 일, 처음으로 시중직을 설치한 일은 모두 별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1) 『삼국유사』 권3, 황룡사장육조.

22) 『삼국유사』 권2, 성덕왕조.

23) 『삼국사기』 권8, 성덕왕 5년조 및 6년조.

24) 『삼국사기』 권9, 경덕왕 6년조.

25) 이기백, 위의 논문, p. 53. 봉덕사의 창건 경위나 인왕도량이라는 표현이나 등이 모두 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한발로 인한 기근은 성덕왕 5년(706)과 6년(707)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중직을 설치한 것은 경덕왕 6년(747)의 일인데 성덕왕대의 사실로 착각한 것이다.

또한 봉덕사의 창건은 별도의 사실이다. 즉 혜공왕 7년(771)이 완성된 봉덕사중(성덕대왕신중)은 현존하여 증명을 직접 읽을 수 있으므로, 봉덕사의 창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창건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봉덕사 창건과 인왕도량을 연계하여 이해한 것이다. 즉 봉덕사가 백좌도량을 시행할 정도로 큰 사찰이었는가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런데 성덕왕대에 인왕도량의 개설은, 봉덕사의 낙성을 기념해서라기보다는 국가의 7難 가운데 하나인 旱魃로 인한 國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특히 7일간이라는 기간을 알려준 유일한 예이다.

백고좌법회의 기간이 7일 간이라는 사실을 다른 예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신라에서는 자장이 7일 주야로 강경한 예가 있다. 또한 「갈양사 혜거국사 비문」에 의하면, 962년에 고려 광종이 혜거를 광명사로 옮겨 주지하게 하면서 7일간 인왕반야회를 주관하게 하였다. 광명사는 고려 태조의 구택을 기념하여 만든 사원으로, 광종 12년의 인왕반야회는 당시 光軍의 설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적 불교의식을 통해 민심의 호응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그런데 그는 금산사계단에서 수계를 받은 후 922년에는 미륵사 개탑을 계기로 열린 選佛場에 참석하였고, 경애왕(924~926)의 초청으로 분황사에 주지하다가, 929년 신라 경순왕의 명으로 영묘사의 주지로 옮기었다. 그는 영묘사에서 법석을 개최하고, 계단을 정비하고, 불탑을 장식하는 등 많은 불사를 하였다. 따라서 그가 고려에 가서 주관한 7일 간의 인왕반야회는 신라의 유풍을 이어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의 예이기는 하지만, 공민왕 22년(1373)에 가뭄으로 시장까지 옮기는 상황이었을 때, 강안전에서 7일 동안 인왕도량을 개설하여 천변을 가시게 한 일이 있다.²⁷⁾ 이상의 예로 볼 때, 신라에서의 백고좌법회도 7일 간 거행하였을 것이다.

26) 허홍식, 1986,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pp. 587~588.

27)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4월조; 그런데 『고려사』 권4, 현종 3년, 11년 5월 등 4차례 궁정 안뜰에서 3일간 『인왕경』을 강독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데, 이는 講仁王經으로 도량이 아니었고, 정종 9년 백좌도량이라고 한 이후에 백좌인왕도량, 백고좌인왕도량, 인왕도량으로 불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형우, 1992,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35 참조.

그리고 飯僧이 행해진 부분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라시대의 반승의 탄력적 운영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사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성덕왕대의 ‘인왕도량’의 개설을 신라에서 열린 4번째 (인왕)백고좌법회의 기록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성덕왕 6년인 707년에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혜공왕 15년(779)의 법회 기록이다.

5)-1, 15년 3월에 수도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이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太白星이 달을 범하였다. 왕은 백좌법회를 열었다.²⁸⁾

혜공왕대의 백좌법회는 수많은 기상 이변을 겪고 나서 열린 법회로 천변지이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혜공왕대에 앞서 경덕왕 대 말기인 왕 19년 4월 초하루에도 해가 떠서 10일 동안 없어지지 않아서 월명대사에게 천하여 도술가를 지어 바쳤더니 해무리가 없어졌다는 설화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²⁹⁾ 정국의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혜공왕 2년 봄 정월에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어 신궁에 제사를 지냈는데도, 양리공의 집에서는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고, 강주에서는 땅이 꺼져 연못이 되고 있다. 그 이듬해인 혜공왕 3년에는 별 3개가 왕궁 뜰에 떨어져 서로 부딪혔고, 4년에는 혜성이 동북방에 나타났으며, 6월에 왕도에 우레와 우박이 내려 초목을 해쳤고,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다.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샘과 우물이 다 말랐다. 호랑이가 궁중에 들어오기까지 하였다.³⁰⁾

이러한 기상이변의 조짐은 혜공왕 4년 일길찬 대공과 대림이 33일 동안이나 왕궁을 에워싸고 난을 일으켰는데, 96각간이 서로 싸우는 큰 정쟁으로 번진 것이다.³¹⁾ 이해(768) 7월 3일에 각간 대공의 적도가 일어나고 서울과 5도 주군의 도합 96명의 각간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각간 대공의 집이 멸망하니 그 집의 재산과 보물, 비단 등을 왕궁으로 옮겼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新唐書』 「新羅傳」에는 ‘때 마침 그 나라 재상들이 정권을 다투며 서로 싸워서 나라가 크게

28) 『삼국사기』 권9, 혜공왕 15년조.

29) 『삼국유사』 권5, 월명사 도술가조.

30) 『삼국사기』 권9, 혜공왕 2년, 3년, 4년조.

31) 『삼국유사』 권2, 혜공왕조.

혼란스럽다가 3년 만에 진정되었다(會基宰相爭權相攻 國大亂 三歲乃定)'라고 하였다.³²⁾

이 반란은 진압되었고, 중국으로의 빈번한 사신을 파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해공왕 11년에는 다시 이찬 김은거의 반역과 이찬 염상과 시중 正門의 반역이 있었다. 이에 왕은 이듬해에 관직을 전대로 복직하고 왕이 감은사로 행차하여 멀리서 바다를 보았다 하나, 望祭를 지냈을 것이다. 그래도 해공왕 13년과 15년에 수도에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특히 15년에는 지진으로 백성들의 가족이 무너지고 죽은 이가 100명이나 되었다.³³⁾ 거의 국난에 해당되는 사건들의 연속 선상에 있었으므로, 백좌법회가 개설된 것이다.

(6) 헌강왕 2년(876)의 법회기록이다.

6)-1, 2년 2월에 황룡사에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강설하였는데, 왕이 친히 행차하여 들었다.³⁴⁾

위의 법회는 정강왕 2년, 진성여왕 즉위년에 베풀어진 백고좌법회로서 같은 연유로 열리었다고 생각된다. 즉, 왕의 즉위 후 국태민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대왕들이 시조묘 내지 신궁에 참배했던 것과 같은 연유로 즉위 초에 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헌강왕은 경문왕의 태자로서 정강왕, 진성여왕, 효공왕과 같이 경문왕가에 속하는 임금으로, 경문왕대의 정치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금이다. 경문왕은 6년에 황룡사에 행차하여 看燈인 연등행사를 구경하였다. 정월 15일의 행차로서 상원연등회이다. 8년에 황룡사 탑에 벼락이 쳤다 하므로, 이에 대한 수리에 절치부심하였을 것이고, 드디어 11년에 수리를 시작하여 13년인 873년에 완성하였다. 이 당시 황룡사 9층탑의 수리를 「황룡사9층탑찰주본기」에 전해주고 있어서 경문왕대의 황룡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문왕의 자녀들인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은 즉위 후 곧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베풀 것은 아마도 경문왕대에 있었던 황룡사의 대역사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헌강왕 2년의 백고좌는 경문왕대의 前國統이었던 혜흥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⁵⁾

32) 『신당서』 권220, 신라전.

33) 『삼국사기』 권9, 해공왕 11년, 12년, 13년, 15년조.

34) 『삼국사기』 권11, 헌강왕 2년조.

(7) 헌강왕 12년(886)의 법회 기록이다.

7) 12년 6월에 왕이 병으로 편치 않으니 나라 안의 죄수들을 사면해 주고, 또 황룡사에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강설케 하였다.³⁶⁾

왕이 병이 나서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백고좌회를 베풀어 국왕의 쾌유를 비는 법회를 열었을 것이다.

이는 고대국가에서 국왕에게 인왕이 될 것을 강조하고, 『인왕경』을 하루 2번씩 강독하게 한 것은 그만큼 국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국왕이 곧 국가라고 본다면, 국왕의 병환은 국가대사였던 것이다.

(8) 정강왕 2년인 887년에 나오는 법회기록이다.

8) 2년 정월에 황룡사에 백고좌를 열고 왕이 친히 행차하여 불경을 강설하는 것을 들었다.³⁷⁾

(9) 진성여왕 원년인 887년에 나오는 법회기록이다.

9) 죄수를 크게 사면하고 모든 주군의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황룡사에 백고좌를 베풀고 왕이 친히 행차하여 설법을 들었다.³⁸⁾

위의 두 법회는 정강왕과 진성여왕이 즉위 후 국태민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헌강왕이 즉위 후에 개최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연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대왕들이 시조묘 내지 신궁에 참배했던 것과 같은 연유로, 왕의 즉위 초에 백고좌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는 경문왕가와 불교와의 관련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35) 『황룡사9층탑찰주본기』 제2판 내면에는 “금상인 경문왕이 즉위한 11년 함통 신묘년에, 그 탑이 기울어진 것을 한하여 이에 친동생인 상재상 위홍 이간에 명하여 △신으로 삼고, 사주인 혜흥을 聞僧 및 修監典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제2판 외면에는 前國統 승 혜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6) 『삼국사기』 권11, 헌강왕 12년조.

37) 『삼국사기』 권11, 정강왕 2년조.

38)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즉위년조.

(10) 경명왕 즉위년 2월 29일에 열린 법회의 기록이다.

10)-1 제55대 경애왕이 즉위하던 동광 2년 갑신(924) 2월19일에 황룡사에서 백좌를 설치하고 강경하였다. 겹하여 禪僧 300명에게 반승하고 대왕이 친히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리니 이것이 백좌법회에서 선종과 교종이 通說하던 처음이다.³⁹⁾

10)-2 제52대 효공왕 시대인 광화 15년 임신(912)에 봉성사 바깥문 동서 21간에 까치가 집을 짓고, 또 신덕왕 즉위 4년 을해(915)에 영묘사 안 행랑에 까치집이 34이나 되고 까마귀집이 40이나 되었다. 또 3월에는 서리가 2번이나 왔으며, 6월에는 참포의 물과 바다 물결이 사흘 동안이나 서로 싸웠다.⁴⁰⁾

10)-3 제54대 경명왕 때인 경명 5년(918)에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므로 3일 동안 불경을 강설하여 물리켰더니, 만나절이 안 되어 또 울었다. 7년 경진(920) 2월에 황룡사 탑 그림자가 금모사지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있었다. 또 10월에는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고, 벽화의 개가 뜰로 쫓아나왔다가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갔다.⁴¹⁾

경명왕 원년에는 9월에 고려 태조에게 사절을 보내 방문하였고, 10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를 크게 사면한 것으로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2 효공왕과 경명왕조에 보이는 천재지변은 거의 국난에 해당되는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봉성사, 영묘사, 사천왕사, 황룡사는 모두 국찰에 해당되는 사찰인데, 이곳에서 國亡을 예견하는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애왕이 즉위하면서 바로 신궁의 참배에 이어, 백좌법회를 개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마지막법회는 예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선종승려 300명이 飯僧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선종과 교종이 함께 통하여 설법하던 처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교종 승들로만 채워졌던 100좌가 선승들도 다수 참여하여 함께 설법한 내용으로, 교종승과 함께 선종승 300명이 함께 반승에 참석한 것이라

39) 『삼국유사』 권2, 경애왕조.

40) 『삼국유사』 권2, 효공왕조.

41) 『삼국유사』 권2, 경명왕조.

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라 말 선승들이 국사로 임명되는 등 이들의 활약상이 국가 행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예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나, 반면에 이 시기까지도 신라의 대부분의 승정과 의례는 교종 승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하겠다.

이상으로 신라에서의 10회에 걸친 인왕백고좌법회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들 법회를 개최연유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구분해 보면, 1) 사방 적의 내침에 해당되는 전쟁관련 국태민안의 기원, 2) 국왕의 치병관련 기원, 3) 해와 달, 28수가 도를 잃는 기상 재이에 따른 정국 안정 기원, 4) 군신시비를 예방하는 즉위 직후 국정안정의 기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먼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것은 모든 백고좌법회가 동일하지만, 특히 사방의 적이 내침하는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는 역으로 신라의 대외발전을 염원하는 내용으로써 (1)의 진흥왕대의 법회와 (2)의 진평왕대의 법회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국왕의 치병관련 기원에 관련된 법회는 (3) 선덕여왕 대의 법회와 (7) 헌강왕 12년의 법회이다. 세번째로 해와 달, 28수가 도를 잃고, 한발 등 기상 재이에 따른 정국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는 (4) 성덕왕대의 법회와 (5) 혜공왕 대의 법회 (10) 경애왕 대의 법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군신시비를 예방하는 즉위 직후 국정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로는 (6) 헌강왕 대와 (8) 정강왕대, (9) 진성여왕대의 법회를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 기록

횟수	명칭	개최 연도	개최 장소	개최 이유	출전
1	백좌강회	진흥왕 27, 566	황룡사	국태민안	『삼국사기』 권44, 거칠부전; 『삼국사기』 권4, 진흥왕 27년조
2	백고좌회, 백좌회 백좌도량	진평왕 35, 613	황룡사	국태민안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 『해동고승전』 권2, 원광전;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3	백고좌회, 백좌인왕경대회	선덕여왕 5, 636	황룡사	국왕의 치병	『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 『송고승전』 권4, 원효전
4	인왕도량	성덕왕 6년, 707(추정)		한발(기상재이)	『삼국유사』 권2, 성덕왕
5	백좌법회	혜공왕 15, 779		기상 재이	『삼국사기』 권9, 혜공왕 15년
6	백고좌회	헌강왕 2, 876	황룡사	국정안정	『삼국사기』 권11, 헌강

					왕 2년
7	백고좌회	현강왕 12, 886	황룡사	국왕의 치병	『삼국사기』 권11, 현강왕 12년
8	백고좌회	정강왕 2, 887	황룡사	국정안정	『삼국사기』 권11, 정강왕 2년
9	백고좌회	진성왕 즉위년, 887	황룡사	국정안정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즉위년
10	백좌법회	경명왕 즉위년, 924	황룡사	기상 재이	『삼국유사』 권2, 경애왕

참고로 고려의 인왕백고좌법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에서도 인왕백고좌법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찍부터 열렸고 불교 연중행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⁴²⁾ 1020년(현종 11) 5월에 현종은 궁중에다가 100개의 사자좌를 마련하고 100명의 학덕이 고명한 법사를 초청하여 『인왕반야경』을 외우는 인왕백고좌도량을 열었다. 현종은 1027년 10월에도 이 도량을 열고 경을 읽고 공양하는 의식을 가졌다.

당시의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받아 큰 고역을 치른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의 침입을 막을 방법을 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법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새롭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 뒤 이 법회는 점차로 격년제, 내지 3년에 한 번 10월중 3일간에 걸쳐서 성대하게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되었다.

고려에서 찾아지는 120회의 백좌인왕도량⁴³⁾은 10월에 가장 많은 47번이 개최되었고, 9월이 14번, 4월이 10회, 3월이 8번, 7월이 7번, 5.6.8월이 각 6번씩, 11월에 5번, 1월과 12월에 3번, 2월에 2번이 개최되고 있다. 이는 10월에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로 삼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정상 알맞은 때에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법회 때에는 궁궐에서 飯僧 佛事を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때는 3만 반승의 행사로서, 수도 개경의 대궐에서 1만 명, 지방의 각 州府에서 2만 명의 승려에게 공양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법회가 열린 장소를 보면, 고려조에서 베풀어진 백좌인왕도량은 대부분은 대궐에서 행해졌고, 가장 많이 열린 장소는 會慶殿이었다. 이 회경전은 현종 대에 창건된 임금의 정전으로, 이 곳에서 백고좌법회를 하고 毬庭에서 대규모의 반승을

42) 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43) 김형우, 1992,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 135.

하였을 것이다. 고려에서 인왕도량 내지 백고좌법회가 설행된 이유는 祈雨, 禳天變, 禳狄兵, 鎮兵 등의 이유로 개최되었음이 밝혀져 있다.

그런데 고려에서의 인왕도량은 불공역의 『인왕경』을 텍스트로 하여 밀교관련 의례와 작법을 활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⁴⁴⁾ 즉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불교의례를 통하여 민과 일심으로 국난기양, 천재지변의 소멸, 국가의 안태를 기원하기 위하여 도량을 베풀고 밀교의 상징적, 신비적, 의례적 성격을 가진 궤와 염송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Ⅲ. 백고좌법회의 개설과 진행

1. 사상적 배경

백고좌법회를 개최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인왕경』으로, 불교의 법을 이해하고 받들므로써 나라를 보호하게 된다는 호국적 내용 때문이었다.⁴⁵⁾

백고좌법회를 개최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인왕경』으로, 불교의 법을 이해하고 받들므로써 나라를 보호하게 된다는 호국적 내용 때문이었다.⁴⁶⁾

이 『인왕경』은 법호, 구마라집, 진제에 의해 3번에 걸친 경전의 번역 과정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구마라집 역의 구역 『인왕경』이 현전하고 있다. 그 후 不空 역의 신역 『인왕경』이 나왔으나, 신라시대의 주석서 4종(원축, 태현, 현범, 예원)은 모두 구역 『인왕경』을 텍스트로 한 주석서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주석서로 보나 신라시기에는 구역 『인왕경』이 법회의 텍스트로 쓰였다. 근래 발견된 구역 『인왕경』의 존재는 이를 더욱 잘 알려주고 있다. 즉 1973년 12월에 충남 서산군 운산면 태봉리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속의 복장물에서 출토된 낙장이기는 하지만, 구역 『인왕경』인 『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落張 5매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⁴⁷⁾ 초조대장경 간행 이후인 11C말~12C초 숙종 년간의 판본으로, 인쇄되어 출판된

44) 박용진, 2004, 「고려 중기 인왕경 신앙과 그 의의-의천과 『대각국사문집』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14, pp. 172~173.

45)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 5, pp. 501~503.

46)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 5, pp. 501~503.

47) 강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미술자료』 18, 국립박물관; 남풍현, 1985,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연대」, 『동양학』 15, pp. 13~17.

것은 12C중엽 경으로 보고 있다. 고려 시대의 것으로 판정된 만큼 신라에 이어 고려에서도 구역 『인왕경』을 텍스트로 삼아 행사를 하였음을 추정하게 해 준다.

신라의 (인왕)백고좌법회는 특히 『인왕경』의 여러 품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법회를 준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대왕들이여, 이 경을 인왕이 반야바라밀에 대해 묻는데 대해 가르치신 경이라 이름한다. 그대들은 반야바라밀경을 수지하라. 이 경은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를 보호하는 공덕이라고도 이름한다. 또 일체 국왕의 法樂이라고도 이름한다. 받들어 행하면 큰 효용이 없을 수 없다. 속宅을 지키는 공덕도 일체중생의 몸을 지키는 공덕도 있다. 즉 이 반야바라밀은 국토를 지키는 것이 성과 같고 참호와 같고 도검과 같고 鋒楯과 같다. 그대들은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⁴⁸⁾

12) “100軀의 불상, 100軀의 보살상, 100軀의 나한상, 100명의 比丘衆, 4大衆, 7衆을 청하여 같이 이 경을 들으라. 100명의 법사를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강하라. 100명의 법사가 高座에 앉아 사자후를 하시는 그 앞에 100개의 등을 켜고, 100가지 향을 태우고, 100가지 빛깔의 꽃을 뿌려 3보를 공양하는데 쓰고, 3의와 기타 什物을 가지고 법사에게 공양하라. 小飯中食도 역시 때에 따라서 바치라. 그리고 대왕들은 하루에 2번 이 경을 강독하라. 그대들 국토 안에는 100부의 귀신이 있고, 그 각 부마다 또 100부가 있다. 이 경을 즐겨들으면 이 귀신들이 그대들의 국토를 지키리라”

13) … 대왕이여 옛날 임금에 있었는데, 이름이 석제환인이었다. 頂生王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나라를 멸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제석천이 곧 칠불의 法用과 같이 하여 백고좌를 베풀고 100법사를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강설하니 정생왕이 곧 물어갔다. 멸죄경 중에 설해져 있다.

이 경에 의거해 볼 때 법회의 준비는 물질적인 준비와 개최연유를 밝히는 정신적인 준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개최 연유와 정신적 준비

48) 『인왕경』상, 제4 二諦品; 『대정장』 권8, p. 829 하.

정신적인 준비로는 법회의 개최 연유를 밝히는 것과 국왕의 정신적인 무장에 관한 준비였다.

먼저 국왕의 정신적인 무장은 국왕이 『인왕경』의 요체인 반야바라밀을 잘 알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왕은 나라를 지키고, 악귀를 쫓고, 국왕이 뜻한 바대로 천지의 도리에 부합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야지혜를 완성해야 가능하고, 이를 많은 이들에게 널리 성취시킬 수 있으므로, 국왕은 하루에 2번씩 『인왕경』을 강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실에서는 반야를 통한 仁王의 이념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는 正法 수호를 위한 聖戰이라는 국가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이들의 상호괴리를 막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⁴⁹⁾ 법회개최의 연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은 중국에서 성립된 경전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왕권과 교권의 교섭과정에서 생겨난 경전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왕경』의 호국사상은 불교의 법과 왕법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각한 마찰을 해결하려는 줄기찬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체계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⁵⁰⁾

다음으로 법회를 개최하게 되는 연유에 대해서이다. 『인왕경』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7難이 일어났을 때, 이를 소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왕백고좌회를 국가적인 규모로 개최하는 것이다. 즉 국토가 어지러울 때에는 먼저 귀신이 어지러이 군다. 귀신이 어지럽게 난동을 하므로 만민이 난삽하고, 적이 와서 나라를 겁탈하고, 백성이 망하고 목숨을 잃는다. 왕의 아들들, 백관들의 시비, 천지괴변, 별, 해, 달이 때와 절도를 잃는다. 대화재, 홍수,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인왕경』 하, 제7 수지품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난은 해와 달이 度를 잃는 것으로, 절기가 반역하여 흑 赤日과 黑日이 나타나고, 2·3·4·5개의 해가 나오며, 흑 일식으로 빛을 잃고, 흑 해무리가 한겹 두·세·네·다섯 겹으로 나타나는데, 변괴를 당하였을 때 이 경을 읽고 풀이한다. 2) 제2난은 28수가 度를 잃는 것으로 금성, 혜성, 운성, 귀성, 화성, 수성, 풍성, 도성, 남두·북두·오진대성, 일체국주성, 3공성, 백관성과 같은 여러 별들이 각각 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또한 이경을 읽고 풀이한다. 3) 제3난은 큰 불로 나라를 태우고 만백성을 소진하게 하는 것인데, 흑 귀화, 용화, 천화, 산신화, 인화, 수목화, 적화와 같은 변괴로서, 또한 이 경을 읽고 풀이한다. 4) 제4난은 홍수가 저서 백성을

49) 정병조, 1983, 「신라 법회의식의 사상적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p. 127.

50) 황태섭, 1972, 「인왕호국반야경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논문, p. 99.

표몰시키는 것으로, 때에 절기가 반역하여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눈이 오며, 겨울에 뇌전벽력이 치고 6월에 얼음, 서리, 우박비가 오고, 적수, 흑수, 청수의 비가 오고, 토산, 석산의 비가 오고, 사역석의 비가 오며, 강하가 역류하여 산이 들뜨고 돌이 구르는 변괴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고 풀이한다. 5) 제5난은 태풍이 불어 만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국토와 산하, 수목이 일시에 멸몰하니 때 아닌 대풍, 흑풍, 적풍, 청풍, 천풍, 지풍, 화풍이 부는 변괴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는다. 6) 제6난은 천지국토가 亢陽 炎火 洞燃, 즉 가물어 한발이 진 것으로 백초가 마르고, 오곡이 자라지 않고, 토지가 타오르고 만백성이 멸진하는 변괴의 때에 또한 이 경을 읽는다. 7) 제7난은 사방의 적이 쳐들어오고, 국내외의 적이 화적, 수적, 풍적, 귀적으로 봉기하는 것으로, 백성이 황폐하고 어지러워서 칼과 병기를 들고 겁 없이 일어나니 이러한 변괴가 있을 때 또한 이 경을 읽는다.⁵¹⁾

이 외에도 군신들이 四重戒, 五逆罪, 8難罪, 六道에 떨어지는 죄 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왕들은 이 경을 강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고좌법회의 개최 이유는 왕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7불이 시행한 방법을 원용하여 백고좌를 베풀고 100명의 법사를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강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은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 하루에 2번 이 경을 강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실질적인 준비

1) 100명의 법사 초청

이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100명의 법사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백고좌를 채울 고승을 말하는 것으로, 신라에서는 이 100명의 법사를 각 지방에서 천거를 받아 확정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고승전』 『원효전』에 “이 때에 국왕이 百座仁王經대회를 설치하고 널리 석덕을 찾았는데, 본주에서 명망으로 그(원효)를 천거하였으나, 제덕이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조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의 내용을 상황과 연계하여 풀이해 보면 이렇다. 즉 원효가 19세 때에 본주인 경산에서 명망이 있어 백고좌법회에 천거하였으나, 여러 석덕들이 그 위인 됨이 걸림이 없어 호방한 것을 싫어하여 왕에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백고좌를 채울

51) 원측은 『인왕경소』에서 이를 8난으로 정리. 1) 鬼亂 2) 萬人亂 3) 賊來 劫國 4) 百姓 亡喪 5) 君臣 是非 6) 天地 怪異 7) 星宿 失度 8) 日月 失度이다.

석덕을 신라의 여러 주에서 천거를 받아 확정하였던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들 100명의 석덕이 『인왕경』을 강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00명의 비구들, 4대중, 7중을 초청할 것을 준비하였으며,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을 준비하고, 100명의 법사가 앉을 고좌를 준비하였다.

2) 100개의 고좌

100명의 고승이 앉을 고좌의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궁정 안뜰에 사자좌 100개 소를 설치하고 3일 간 『인왕경』을 강의했다”⁵²⁾는 고려시대의 기록이 보일 뿐,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법회에 쓰였을 고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일본과 중국에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시기의 것을 찾아서 추정해 볼 뿐이다.

다음의 그림은 일본의 唐招提寺의 강당에 있는 2개의 고좌와 중국 돈황 323굴 남벽 벽화의 장면에 나오는 고좌이다.⁵³⁾ 돈황벽화는 수나라 문제가 담연법사를 모시고 설법과 8계를 받는 내용인데, 이 그림에 보이는 담연과 수문제가 앉은 고좌를 참고할 수 있다.

강당 내에서 혹은 천막을 치고 백고좌회를 설행할 때는 그림2의 담연이 앉은 고좌가 배치되었을 것이고, 노천에서 행했을 때는 그림1과 같이 지붕이 있는 고좌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의 예반과 같은 형태의 자리가 그림6에 보이듯이 국왕 이하 귀족, 외국 사절들의 자리로 개설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52) 『고려사』 권4, 현종11년 5월 초하루 신해일.

53) 일본의 당초제사 강당의 고좌는 경주대 이강근교수가, 중국 돈황 벽화의 고좌는 부경대 주경미교수가 도움을 준 내용으로 두 분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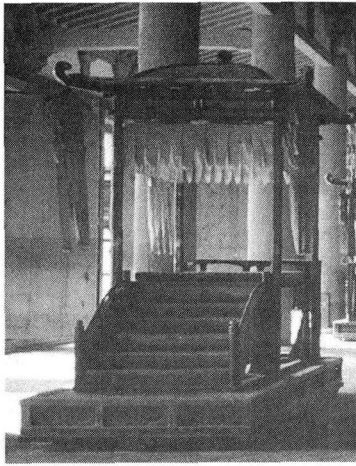


그림 1. 당초제사 강당의 고좌



그림 2. 돈황 323굴 남벽 벽화의 일부 내용
의 일부 내용



그림 3. 돈황 323굴 남벽 벽화의 전체 내용



그림 4. 돈황 323굴 남벽 벽화의 일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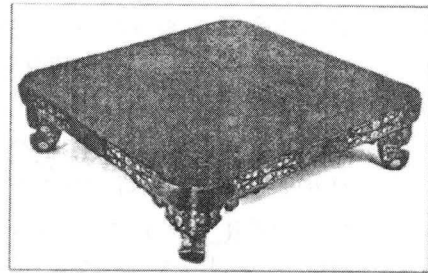


圖 9. 禮盤(일본 鎌倉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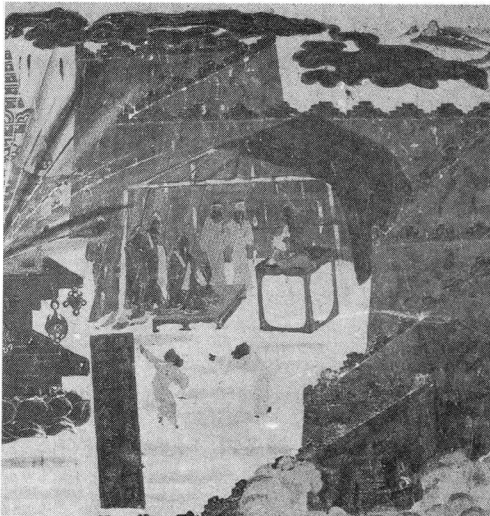


그림 6. 돈황 323굴 남벽 벽화의 일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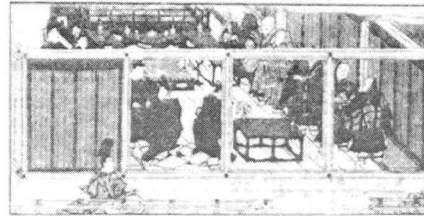


圖 10. 法念上人繪傳(일본 知恩院소장)

그림 5.

3) 꽃과 향

법회의 개설을 위한 준비물로는 삼보를 공양할 100개의 등, 100가지 향, 100가지 빛깔의 꽃을 준비하였다. 이는 갖가지 등과 갖가지 향과 갖가지 꽃을 3보전에 공양하기 위한 것으로, 신라시대에 사용하였을 향과 꽃, 과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드물게나마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14) 경덕왕(742~764)은 또 당나라 代宗皇帝(762~778)가 불교를 믿고 받든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를 위해 工匠에게 명하여 오색 모직물을 만들고 또 沈檀木에 明珠와 美玉으로 꾸며 假山을 만들게 했는데 높이가 한 길 남짓 되었다. 그것을 오색 모직물 위에 놓았다. 가산에는 높은 바위와 괴이한 돌과 洞穴이 각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 구역 안에는 歌舞伎樂의 모습과 온갖 나라의 산천의 형상이 있었다. 살살 부는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벌과 나비가 훨훨 날고 제비와 참새가 춤을 추니 얼핏 보아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속에는 또 1만 불이 모셔져 있는데 큰 것은 사방으로 한 치가 넘고 작은 것은 8, 9푼쯤 되었다. 그 머리는 큰 기장만하거나 콩알 반쪽만 했다. 머리털과 白毛며 눈썹과 눈이 선명하여 형상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그 형상은 다만 비슷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자세히는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萬佛山이라 했다. 다시 금과 옥을 새겨 流蘇幡蓋와 菴羅·薔蔔·꽃과 과일의 장엄한 것과 1백 보되는 樓·閣·臺·殿·堂을 만들었는데 전체가 비록 작기는 하나 기세가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앞에는 돌아다니는 중의 형상 1천여 구가 있고, 아래에는 紫金鐘 3좌가 벌여 있는데, 모두 종각이 있고 蒲牢가 있었으며 고래 모양으로 종치는 방망이를 삼았다. 바람이 불어 종이 울면 돌아다니는 중들이 모두 앞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염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렸으니, 대개 그 활동의 중심체는 종에 있었다. 비록 그 이름은 萬佛이라고만 했으나 그 참모습은 이루 기록할 수 없다.⁵⁴⁾

762년에서 764년 사이에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만불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유소변개와 담복, 암라 등의 귀중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소변개는 끈으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드리우는 유소를 번에 장식하여 천개 아래에 매달은 것이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일본에 전해준 신라의 번

54) 『삼국유사』 권3, 「사불산 굴불사 만불산」.

은 수나라대의 번을 다소 변형한 번으로, 7세기 초 고신라번의 형태는 일본의 법륜사번(7세기 후반~8세기 초)과 흡사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⁵⁾.

그런데 8세기 후반 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르부두르의 조각에 나오는 번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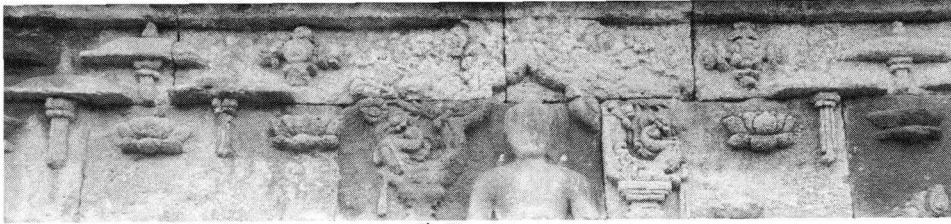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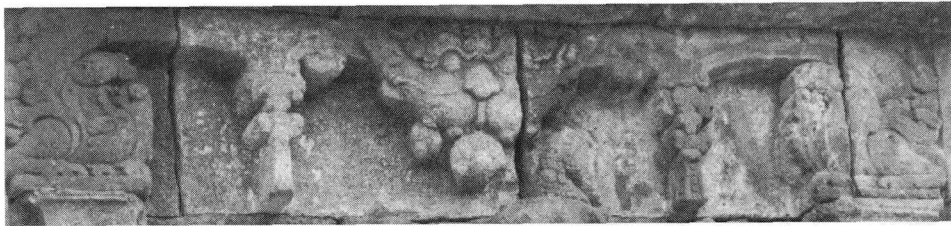


그림 8

다음은 꽃으로, 만불산조에는 서역담복으로 불리는 치자꽃이 나온다. 이 꽃은 향기가 최고로 여겨져 공양품으로 많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치자꽃이 도5의 불국사 석가탑 사리기의 뚜껍에 새겨져 있는 꽃그림⁵⁶⁾과 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이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형태나 내용으로 볼 때 치자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리기의 뚜껍에 새겨질 정도의 꽃이라면, 그 중요성과 대중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에서 개최하는 백고좌법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썼을 뿐 아니라, 인근의 백제와 일본, 동남아 등에서 나는 꽃들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고좌법회에서도 이 치자꽃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남아의 사원에도 이러한 문양의 꽃이 장식된 것이 보인다. 이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55) 임영애, 1991, 「한국·일본의 고대 불교번에 관한 연구 -중국 당번의 한국·일본의 전파와 수용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190·191호, pp. 14~15.

56)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편,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3-사리기·공양품-,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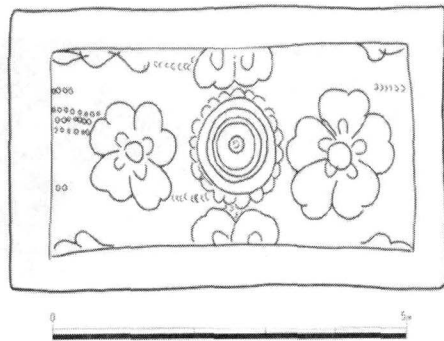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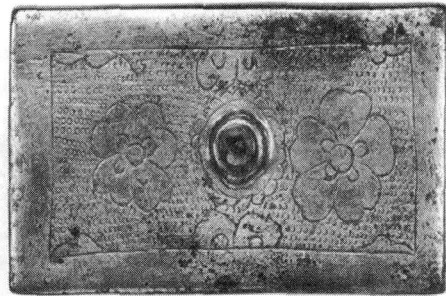


그림 9. 태국의 왓아룬사원(일명 새벽사원) 문양

그림 10. 불국사 석가탑 사리기 뚜껑

하지만 꽃으로는 무엇보다도 연꽃이 많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신라 시대의 많은 조각품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법회 때에는 산화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화나 꽃, 내지 꽃잎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의 그림은 보르부두르 불탑에 새겨진 散花의 장면을 예시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 불탑은 8~9세기 경에 세워진 것으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신라와 같은 시기에 세워진 불탑으로 혜초가 남해를 거쳐 인도에 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불탑에 새겨진 그림의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보르부두르불탑의 불상 주변의 산화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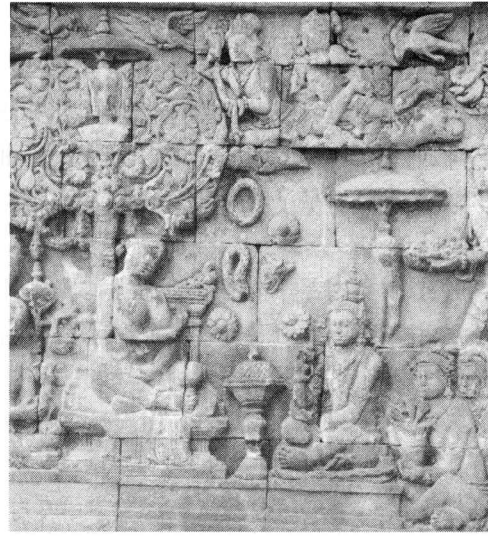


그림 12. 보르부두르불탑의 설법정면의 산화장면

공양물 가운데 과일은 매우 중요한 품목인데, 특히 『삼국유사』 「만불산」조에는 과일로 菴羅로 표기된 망고열매가 특기되고 있다. 국가적인 대법회인 백고좌법회에서는 토산품인 과일과 함께 수입과일이라 할 수 있는 망고가 공양품 과일로 차려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불경에 보이는 망고동산 등에 의거해 볼 때, 망고는 중요한 공양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르부두르불탑에는 망고가 공양품으로 새겨져 있다.



그림 13. 보르부두르 불탑의 공양물 조각의 망고

이 외에도 신라에서 나는 많은 과일과 꽃이 차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국사석가탑 목서지편에는 사리를 금당 중앙에 모시고 잡과 등 33종을 써서 공양하는 내용과 매일 꽃과 燈燭을 써서 공양하는 내용이 나온다.⁵⁷⁾

향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및 서석탑중수형지기에 나오고 있고, 『양서』에도 보인다.

먼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및 서석탑중수형지기에 나오는 향을 추려 보면 그 종류가 龍腦, 丁香, 青木香, 生波香, 乳香, 骨香, 赤□□香, 入香, 白但(丹)香 등이 있다. 유향은 옷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진을 말린 것으로 몰약과 함께 방향제로 사용되었던 최초의 樹脂이다. 국보 126-16호와 국보 126-26의 침향편들은 금동제 사리 외함과 금동 방형 사리함 사이 공간에 향을 담은 형꼬주머니 안에 있었다. 주로 동남아에서 나는 침향나무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불교에서 중요한 약용열매로 취급하는 가리목(可梨勒, 訶子)과 빈랑(檳榔)이 들어있었다.⁵⁸⁾ 차로는 臘香茶, 龍香茶가 나온다.

이 외에도 중국의 『양서』 諸夷傳에 보이는 향은 침목향, 소합향, 울금향, 벌침과 울향(筏沈婆律香), 沈檀, 잡향약, 잡향이다. 중국에서는 한말 이래 불교가 성행하게 되어 사원과 스님들에게 공양하기 위한 향료의 수요가 많아지자, 남해 여러 나라의 특산물인 향료 수입이 중요시되었는데, 특히 남경에서 그 수요가 가장 많았다. 남경은 남조의 양나라의 건강, 진나라의 금릉이었던 곳으로 백제와 신라인들의 출입이 잦았던 곳이어서 이러한 향들이 신라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燈은 고좌와 고좌 사이에 설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범회를 담당할 100범사에게 공양할 물품으로 3衣와 기타 什物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물품으로는 3衣, 1鉢(발우), 坐具, 剃刀, 刀子, 澆水囊, 鉢袋, 針筒을 의미한다.

범회를 마치면 임금은 백고좌회에 참석한 고승들에게 가사를 내렸는데, 고려에서의 예를 들어 보자면, 磨衲衣와 滿繡袈裟와 같은 것이다.⁵⁹⁾

57)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편,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2-중수문서-, pp. 53~54. pp. 62~64에 의하면 주와 과자가 나오고 p. 75에는 조화 10개가 보이므로, 술과 과자 그리고 조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8)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편,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4-보존처리 분석-, pp. 50~55.

59) 첫 번째는 고려 의종이 백고좌회에 참석한 의광에게 손수 마납의를 하사한 것이다. 黃文通이 지은 유가업 승려 義光의 묘지명(의종 12, 1158)에는 “金나라 皇統 5년 을축년

인왕백고좌도량 때 함께 행해진 것은 승려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飯僧이었다. 위의 『인왕경』에서 언급된 小飯中食의 내용은 승려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飯僧의 경전적 근거가 된다. 신라시대에 반승에 관한 기록은 앞에서 살펴본 신라의 10번째 경애왕 원년의 기록이 유일하지만, 『인왕경』의 기록을 볼 때 반승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반승은 인왕반야백고좌법회를 개최할 때 함께 행해졌다. 의천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인왕반야백고좌법회를 열 때는 승려 3만 명에게 齋를 베푸는 것을 향례의 법식으로 삼았다”⁶⁰⁾고 하여 3년에 한 번 열리는 백고좌법회는 반승 3만 명을 동반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승려의 식사와 더불어 일반 신도들이 법식을 나누어 먹는 대중공양이 동시에 베풀어졌는데, 신라시대에도 이에 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반승은 단순히 승려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 공덕이 인정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후에는 승려에게 법을 베풀어 받았으므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상관관계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

4. 법회의 진행

(인종 23, 1145)년에 三重大師가 더해지고 繡帖磨衲袈裟를 하사받았다. 7년 정묘년(의종 1, 1147)에는 伊山 伽耶寺 주지로 옮기면서 首座가 더해졌다. 이듬해 무진년(의종 2, 1148)에 궁궐 안의 百座法會에 참석하자 임금이 손수 磨衲衣를 내려주었다. 뒤에 임금이 관리를 산으로 보내어 친서를 전달하여 위로하고 문안하였다. 이어 靑帖袈裟를 하사하여 총애하고 대우하는 예를 융숭하게 하였다. 정원(貞元) 10) 3년 을해년(의종 9, 1155)에 崇敎寺 주지로 옮겼다”고 나와 있다. 그가 삼중대사가 되자 繡帖磨衲袈裟를, 수좌로서 백좌법회에 참석하자 마납의를, 그리고 다시 청첩가사를 하사하고 있다.(黃文通撰, 「卒瑜伽業弘(圓)崇敎寺住持通炤正覺首座墓誌」 『고려묘지명집성』(김용선편저, 199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p. 160) 또 한 예는 승 智僞의 묘지명(1193)으로, 이에 의하면 “경인년(명종 즉위, 1170)에 三重大師가 되고, 을미년(명종 5, 1176)에는 滿衲袈裟를 하사받았다. 기해년(명종 9, 1179)에는 首座에 오르고, 경자년(명종 10, 1180)에 滿□□를 하사받았다. 정미년(명종 17, 1187)에 승통이 되고, 기유년(명종 19, 1189)에는 中選을 주관하였다. 경술년(명종 20, 1190)에는 滿繡袈裟를 하사받았다. 이 □(해) 10월에 국가에서 百座會를 개설하고, 스님을 空門의 領袖로 삼아 법회를 주관하도록 하였다”(『개성 靈通寺住持智僞墓誌』 『조선금석총람』 상, p. 417, 김용선편저, 위의 책, pp. 276~277). 지칭은 靈通寺 주지로 通炤僧統인데, 위의 예로 보아서는 법회를 주관하는 상수 내지 영수에게는 미리 백고좌법회 전에 가사를 내려 이를 입고 법회를 주관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60) 의천, 『新集圓宗文類序』(『국역대각국사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5).

위와 같은 준비를 거친 후 법회를 하는 장소는 강당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천막을 치고 마당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우선 강당에서의 경우를 보면 “자장이 어느 해 황룡사에서 7일 밤낮으로 菩薩戒本을 講演하였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강당을 덮었다. 사부 대중이 모두 그 異跡에 탄복하였다”는 『삼국유사』 권4, 「자장정를」조의 내용에 의거해서이다. 즉 강경은 대체적으로 강당에서 거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당은 금당기단에 비해 매우 낮으며, 건물지 내부에는 塼을 깔았는데, 서쪽에서 4번째 주칸인 內陣 북쪽에 한 변이 약 3m인 방형 石區가 있었고, 그 남쪽에 이와 비슷한 방형의 구획을 볼 수 있어 이를 설법단(講師와 讀師의 高좌)을 놓았던 자리로 보기도 한다.⁶¹⁾ 일본도 같은 형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을 설치하고, 100개의 고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황룡사탑의 중앙에 천막을 치고 법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 본 돈황벽화의 내용이 참조된다.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면 그 곳에 100개의 불상과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 그리고 100개의 고좌를 설치하여 도량을 잘 꾸미고, 또한 갖가지 등, 망고를 비롯한 각종 과일, 치자꽃을 비롯한 각종 꽃이 공양대에 차려졌을 것이며, 정향, 침향, 유향, 골향, 백단향, 청목향, 생과향, 입향, 소합향, 울금향, 잡향 등 갖가지 향을 피워 경건함을 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왕백고좌법회는 법회를 열기 전에 『인왕경』의 前導奉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신라시대에 행해진 것은 알 수 없다. 고려에서는 선종 2년인 1085년에 처음 제도화되었는데, 이 전도봉행 행사는 송의 영향을 받아 국왕의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⁶²⁾ 즉 전도봉행은 『인왕경』을 7보 상자에 담고 붉은 비단을 덮어 씌어, 여가 100보 앞에서 인도하는데, 국왕이 거동 시에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를 받들고 인도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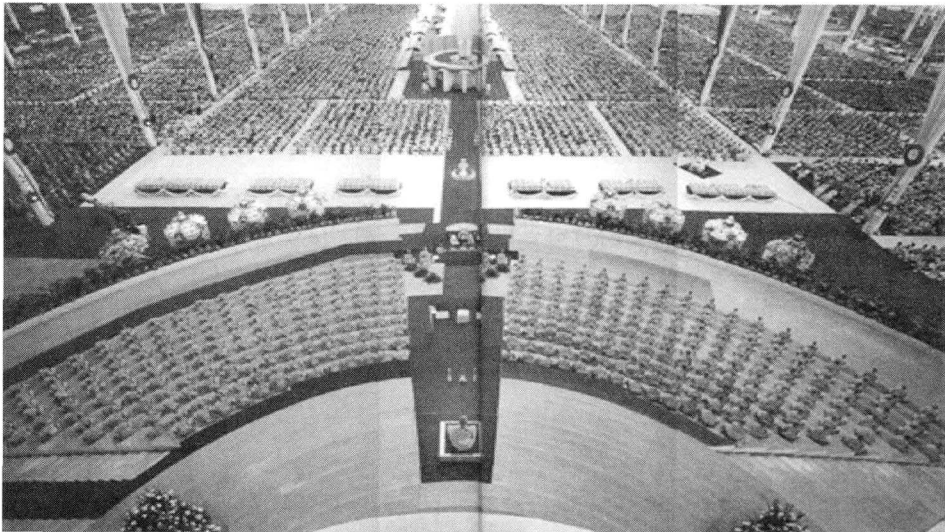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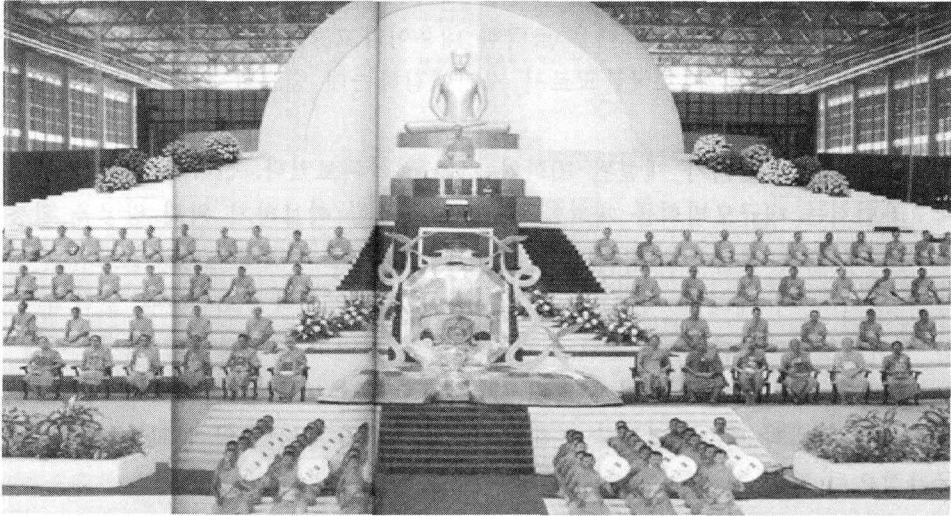
법석은 황룡사탑을 등지고 단을 설치하였을 것인데, 威儀上 또는 장소관계상 아마도 중층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련된 자리에 100법사가 중앙의 上首법사(원광 등)를 중심으로 하여 좌정하고, 맞은 편에 국왕 이하 대신들, 수의 사신 왕세의 등 외교사절도 좌정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법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갖가지 등을 밝히고, 갖가지 향을 태우며, 갖가지 꽃을 뿌리고, 上首 이하 100법사는 이경을 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61) 장경호, 1991, 『백제의 사찰건축』, 예경산업사, p. 270.

62) 박용진, 2004, 위의 논문, pp. 169~172.

법회는 앞서 성덕왕 대의 인왕도량에서 살펴보았듯이 7일 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법회를 마치면 반승을 행하고, 공로있는 승려들에게는 가사를 수여하였다.

다음의 사진은 태국의 담마까야사원에서 행해진 법회의 모습을 예시로 제시해 보았다.



IV. 맺음 말

신라의 백고좌법회는 진흥왕대에 처음 개최된 이래 10회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고려에서의 200번에 비하면 매우 소략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법회는 여러 면에서 신라불교가 호국불교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적인 대규모의 법회였다.

본고는 백고좌법회가 개설된 10회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신라에서 처음 개설된 백고좌법회는 대규모법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왕궁을 황룡사로 만들게 되는 배경에 해량의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또한 선덕여왕이 병이 나서 개최된 백고좌회는 원효가 천거되었으나 100법사에 포함되지 못한 백좌인왕경대회를 같은 법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성덕왕대의 인왕도량을 백고좌법회로 보고 7일간 법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신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경애왕대의 백고좌법회를 통해 100명의 교종승과 선승의 선교통설로 선종이 국가적으로 점점 위세를 차지하게 되는 면을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법회의 사상적 배경인 『인왕경』의 관련내용과 법회의 실질적인 준비상황, 그리고 진행까지 영성하게나마 인왕백고좌법회의 면모를 밝혀 보았다. 특히 『삼국유사』 만불산 조에 나오는 담복과 망고를 들어 신라인들이 불교의 본향인 인도에서 나는 담복인 치자꽃과 망고열매를 공양물로 썼을 것임을 밝혀 볼 수 있었고, 현재 태국에서의 법회를 백고좌법회와 비슷한 그림으로 제시해 보았다.

[논문투고일 : 8월 2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13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6일]